

1. 고등학교 교실

a. 고등학교 교정. 수업이 끝난 뒤 느즈막한 오후의 교내 풍경.

방과 후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교복 차림의 네 남자. 명구, 민석, 진규, 우성
한껏 고뇌에 빠져있는 민석과, 민석의 양쪽에서 열띤 첨언을 하고 있는 명구와 진규. 그리고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성.

진규 야 고백은 무조건 공개고백이지. 자기를 위해 한 남자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나?

민석 그런가?

명구 맞아, 내가 아는 형도 운동장에서 풋볼 하트모양으로 깔고 공개고백 했는데 성공했
대.

민석 정말?

명구 그렇다니까.

진규와 명구의 말이 영 탐탁치않은 민석.
그런 셋을 바라보던 우성 카메라를 보고는.

우성 지금은 모태솔로 민석이의 고백을 위한 회의중, 친구이기는 하지만... 이 새끼들은 진
짜 악마다. 누굴 개망신 주려고 공개고백을...

진규 흥분한 듯 우성에게

진규 우성아, 넌 뭐가 더 나올 것 같냐?

우성 나?

진규 그럼 우성이가 여기 너 말고 또 있냐? 어떻게 생각해. 며칠 전에 고백도 성공했잖아.

우성, 골똘히 고민하다 일타강사에 빙의하여 강의를 시작한다.

우성 고백은 무조건 공개고백이지. 분위기 딱 만들어주면 여자애가 거절을 못한다니까?
아, 그리고 공개고백은 무조건 춤이야. 민석이 너 춤 잘 추잖아. 그 뭐야 엔디 하트
춤 알지. (하트춤 시범을 보이며) 그거 하면 대박이라니까?

명규 그거 좀 오래되지 않았냐?

진규 그래, 그리고 춤은 좀...

우성 야, 클래식한게 먹히는 법이야. 세상 귀엽게 하트춤으로 고백하는데 이 세상 어느 여
자가 마다하겠나? 그리고 이게 다 민석이가 춤을 잘 추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구.
나는 춤 못 춰서 이런 거 못해.

그동안 떨떠름하던 민석, 우성의 말에 한줄기 빛을 본 듯 행복하게.

민석 이야, 맞네. (우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역시 우성군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다.
좋아 오늘부터 하트춤 맹연습이다. 다들 도와줄거지?

우성 (민석과 어깨동무) 친구의 모솔탈출을 위한 일인데, 당연 도와주고 말고. 너희도 도와
줄거지?

민석 오예~!

신난 우성과 민석, 하트춤 난발...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진규와 명구.

진,명 (V.O) 우성이 이새끼는 진짜 악마다.